

2021년 7월 25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30편 1~2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0편 1~2절]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82장(통432) 너 근심 걱정 말아라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다니엘 10장 1~9절(구약p.1250)

1. 바사 왕 고레스 제삼년에 한 일이 벨트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2. 그 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3.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4. 첫째 달 이십사일에 내가 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5. 그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6.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7.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8.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9.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 말씀선포 / 기도 사역을 감당합니다.

연일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소식만이 들려옵니다. 지난 9일 거리두기 4단계가 이루어지며 2주간 온라인 예배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8월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했지만 지난 금요일 결국 거리두기 4단계가 또 다시 두 주간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뉴스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어렵게만 합니다. 이러할 때 과연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개인의

기도를 통하여 자신과 가정을 더욱 강건함으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더욱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을 함께 살펴봄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니엘은 말은 모든 일에 신실했고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과연 그의 탁월함과 지혜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자신의 민족 유대의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 생활의 일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성도, 이 시대 깨어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며 영적으로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이 땅에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 생활에서 배워야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 기도는 힘써 행해야 합니다.

- 본문 1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제삼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고 했습니다.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고레스 왕 3년은 처음으로 유다 백성 중에 일부가 스킴바벨과 함께 귀향했던 시점과 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때 인생의 말년에 이른 노쇠한 몸이었기에 그토록 원하는 귀향길에 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조국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참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비록 연약해진 육신의 한계 때문에 고향으로 갈 수 없었지만, 그는 죽음을 앞둔 노년에 이르러서도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육체적 건강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기도했으며, 기도 중에 보게 된 환상의 의미가 너무 중요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개인 경건 생활의 일부로 잠깐씩 드리는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그야말로 철저한 노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몸을 움직이는 사역과 봉사에는 열심을 내면서도 때론 기도와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과 봉사를 통하여 성과를 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하는 것보다 더욱 크고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고 약속하시면서 성도가 기도할 때, 사람이 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참으로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건강도, 가정도, 믿음도 스스로 지켜 나가기 더욱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일들도 뜻도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의지해 성도는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의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회복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 생활에서 배워야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 애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 본문 2~3절입니다. “그 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고 했습니다. 세 이레는 3주 21일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3주 동안 금식하며 스스로

근신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좋은 음식들을 멀리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행위는 마음속에 있는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같이 애통의 시간을 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계시를 통해 포로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위기가 사라지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전히 고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다니엘은 슬픔에 잠긴 나머지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계시를 깨닫고 나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해야 하는 기도에는 엄청난 부담을 느껴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부담으로 육체의 즐거움을 다 끊어 버리고 애통해하는 이러한 다니엘을 찾아오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은 애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애통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애통하며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에서 고통당하는 이 민족을 생각하며, 정치적인 불안과 경제의 악화를 생각하며, 참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판적 시선을 생각하면서 성도는 애통함을 가져야 합니다.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이 땅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함으로 자녀와 가정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져야 합니다. 형식적 기도의 수준을 넘어 애통하고 간절하게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개인 기도 제목만을 아뢰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더욱 기도에 헌신해야 합니다.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함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65장(통484)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 폐 회 / 주기도문